

고난과 부끄러움

그러므로 그대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증인이 된 것이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오. 오히려 하느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과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은총은 천지창조 이전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없애 버리시고 복음을 통해서 불멸의 생명을 환하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을 위해서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읍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내가 맡은 것을 그날까지 지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생활 원칙으로 삼으시오. 또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대가 맡은 훌륭한 보화를 잘 간직하시오. (딤후1:8~14)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고난주간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한 해석을 되새기곤 합니다.

·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생각지 않고 이 세상에 속한 생각으로 한다면 고난을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질병, 가난 때문에 고난을 겪는 고통, 좀 다른 차원에서 말해서 인간 관계, 애정, 우정, 정치적인 갈등, 또 전쟁의 가능성, 사회혼란 때문에 초래될 사건에 불안을 느끼는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수난은 이러한 것을 초월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수난에 면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겪는 고난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피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모든 인간이 겪는 수난 플라스 알파의 고난입니다. 이 알파가 무엇인가?

오늘의 한국 크리스찬의 고난이 오늘 한국 국민이 당하는 고난 플라스 알파라면, 그것은 한국적인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저지른 실수에서 받는 고난을 십자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이것은 프라스틱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흔히 억울하다, 괴롭다, 고통스럽다고 하는 일을 꼼꼼히 따지고 보면 그것은 결코 신앙 생활에서 오는 고난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자기가 깊어져야 할 짐으로 인한 실수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고 감수해야 하는 고난, 즉 인간적인 고난 플라스 알파의 고난의 성격이 무엇이겠는가? 특히 오늘 한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에누리 없이 받아들여야 할 고난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대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당하시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 이유로서,
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주저하지 않는 이유로서,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잘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이 내게 맡겨진 것을 그날까지 지켜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거나, 그가 우리에게 맡긴 것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의 크리스찬이 짊어져야 할 고난, 즉 한 인간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받아들여야 할 고난, 즉 플러스 알파의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확신하고 살아나가는 일입니다.

G. 산타야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기독교인이 당면하는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대에 영합하여 복음을 그 시대정신에 알맞게 적응시키는 유혹이요, 둘째는 순교자 콤플렉스에 빠지는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받는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어떤 도덕적인 정결만을 고집한 나머지 자신의 인간적인 집착에 편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 신앙의 자유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그 자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보적인 이해에서는 먼저 집회, 예배의 자유, 즉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 이러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자유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압박 밑에서 자유로운 예배를 보지 못하는 북한의 크리스찬에 비하면 우리가 이러한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자유는 그보다 더 깊은 데 있다고 봅니다. 즉 예배의 자유, 신앙활동의 자유는 믿는 자의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의 양심에서 하는 증언이 자유롭게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보적인 법적으로 보장된 자유보다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자유입니다.

신앙양심에서 하는 증언이 구속을 받는 일,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감수해야 하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한국 기독교인이 이러한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신앙양심에서 증언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첫째로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자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모든 인간의 제도에서 빚어지는 속박에서 인간을 해방하는 자유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인 속박 밑에서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자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책임적인 자유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한대로 「그분이 내게 맡기신 것」이 바로 책임적인 자유입니다.

책임적인 자유는 결코 개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과 개인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의 자유입니다. 책임적인 자유란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공동체 자유입니다.

요즘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오해와 왜곡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이니 한국적 민주주의니 하는 말이 나오는 바람에 자유의 개념에 상당한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진정한 책임적인 자유, 공동체의 자유는 결코 정치가들이 만들어낸 정책적인 자유가 아니기 때문에 금력으로 사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써 우

리에게 보장된 자유, 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얻은 자유만이 인간을 악의 힘에서 해방시키고 인간을 인간답게 해 주는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근원적인 자유를 신자의 구체적인 생활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 내 자식에 대한 애착과 나의 정력, 나의 관심을 독점하던 것을 내가 어떻게 소유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들의 종이 되고 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해방되는 자유는 신자의 가장 어려운 결단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으로 선물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가능성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 이 가능성을 이기는 길은 오직 주님의 은총에만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그의 손에 달렸다는 깊은 자각에서만 가능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자유를 말한다는 것은 이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밖에 우리에게 자유를, 책임적인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은 이 땅 위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말하는 사람의 수는 대단히 적습니다. 대다수의 신도는 다만 예배하고 찬미하고 기도하고 집합 그것도 대형 집회하는 자유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보다 오늘 우리를 억압하는 힘으로부터의 해방을 부르짖고 자유를 부르짖는 사람의 수는 극히 적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전 인구의 10%에 불과합니다. 10%밖에 안되는 기독교인 중에서 이러한 진정한 자유, 억압적인 제도와 힘에서부터의 자유를 부르짖고 투쟁하는 기독교인의 수는 더욱 적습니다. 이 자유를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싸움은

고독한 것이 되기 쉽습니다.

최근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유류파동을 통해서 우리의 생산 산업과 일상생활의 원동력이 되는 유류의 태반이 중동의 약소국들에서 공급되었고, 이 약소국들이 단결해서 단유조치를 하는 바람에 세계 강대국에 큰 타격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리비아, 쿠웨이트, 시리아 같은 나라는 우리의 머리 속에 별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 않은 보잘 것 없는 약소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에너지의 원천을 장악하고 이것을 강대국과의 대결에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정신적인 면에서 본다면 보잘 것 없는 작가의 작품이 우리에게 큰 자극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국을 떠나 강대한 국가들의 무감각한 힘의 정치에 항거한 게오르크와, 그리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던 빈민굴 전도사들의 가냘픈 외침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네임 벨류나 영웅심, 또는 그들이 훌륭한 신학자들이어서가 아니라 다만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를 작품과 생활을 통해서 묻고,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정신적인 힘의 원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네임 벨류가 있는 사람들이 눈치를 보고 있을 때 모든 신학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써 대중을 현혹시키고 있을 때, 모든 지도자들이 본질적인 물음을 회피하고 있을 때, 아주 단순하고 명백한 말로써 「나는 자유하다」고 증언한 주의 종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보잘 것 없는 무명의 전도자들입니다. 지금 이 증언자들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받는 종들이 조금도 우울하지 않고 명랑하게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 고난의 생활이 즐거워서가 아닐

것입니다. 또 며칠 후에 풀려 나올 수가 있다는 보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총에 매달리고 사는 즐거움을 맛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고전4:25)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무명의 증언자들은 고난 속에서 이러한 무한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함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한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오늘의 한국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집착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밖으로부터 오는 권세자들의 압력 아래서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십자가의 부활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뜻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거듭 되풀이해야 할 복음의 증언이어야 하겠습니다.